

중서부지방 점토대토기문화 취락의 변천과 성격

진영민*

(前 한국고고환경연구소)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취락구조와 유물 |
| II. 점토대토기문화 생활유적의 분포와 분류 | IV.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취락의 변천과 성격 |

I. 서론

그간 점토대토기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주민들의 정체성과 기원 및 편년, 무덤과 청동기문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취락과 관련된 연구는 소극적인 편이었다. 지금까지 생활 유적을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들(전일용 2006; 김나영 2007; 황외식 2008; 이정은 2012)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편년과 형식변화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생계경제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고은별(2010)의 논고가 유일하다.

한편,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양상과 사회성격, 집단 간의 접촉 및 교류양상에 관한 논의는 2000년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박순발 1997; 김범철 2001; 노혁진 2001; 이형원 2005; 박진일 2006; 송만영 2011; 신영애 2012). 가장 최근에는 외래계(이주민)와 재지계 집단의 구체적인 문화접변 근거(모방절충토기)를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이형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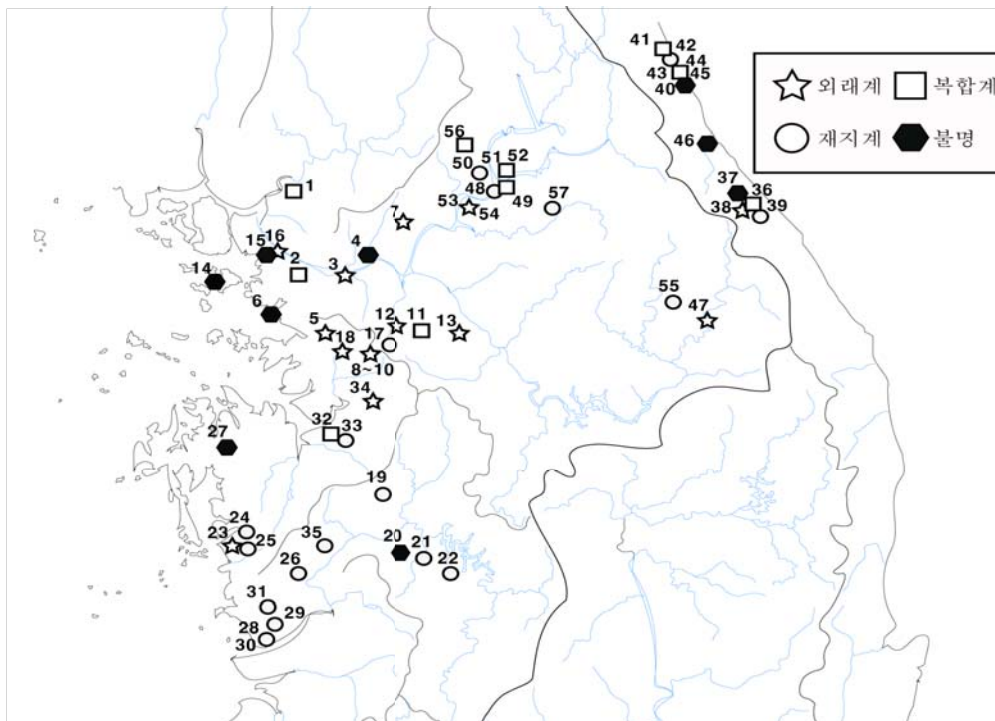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문화의 취락 연구는 청동기시대 취락의 연구 성과와 비교하였을 때 부족한 편이다. 이는 분석 자료의 대상이 한정된 지역을 중심으로만 다루어졌기 때문이며, 특히 이 시대 취락의 총체적인 양상에 대한 인식보다 소수의 유적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전체 취락유적에 대한 조망이 먼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작업의 일환으로 한정된 수계, 소지역별 중심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은 지역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시간적인 축에서 호남·영남지역의 한반도 남부지방보다 이르다고 판단되는 경기·강원·호서지역을 포함한 중·서부지방을 대상으로 이 시대 취락의 총체적인 양상에 대해서 초보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¹⁾

*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졸업

II. 점토대토기문화 생활유적의 분포와 분류

1. 유적분포 현황

한반도 중서부지방에서 시·발굴조사된 점토대토기문화의 생활유적 중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 분석이 가능한 유적은 57개소 정도이다. 여기에 더하여 산포지, 지표조사 및 横山자료를 포함하면 이 문화의 분포는 100여 개소가 넘는다.



〈도면 1〉 한반도 중부·서부지방 점토대토기문화 생활유적 분포도

2. 주거유형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의 발생은 1990년대 이후 지금의 중국 동북방면인 요령지역에서 기원한 외래기원설(박순발 1993b; 이건무 1994)로 이해되고 있다. 점토대토기문화의 이주민들이 한반도

1)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의 시공간성에서 연구자들은 호서·강원지역의 중부·서부지방이 호남·영남 지역의 남부지방보다 이르고 보고 있다. 또한 점토대토기문화 주민 이주의 외래기원설(박순발 1993b; 이건무 1994)이 대두되었던 초기에는 북한지역을 경유하지 않은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서해안일대를 최초 도래지로 보는 견해가 한동안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압록강~원산만 일대를 통한 육로의 유입이 병행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의 견해들도 제기되고 있다(박순발 2004; 정여선 2010; 이형원 2011, 2015). 그러나 중서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시간적으로 이르는 견해를 반박하는 주장은 현재까지 없다.

로 유입되고 정착한 시점은 연구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당시 한반도 남부지역은 청동기시대 중기 혹은 후기로 편년되는 송국리유형·검단리유형·천전리유형의 재지계 문화들이 팽배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시대 취락의 특징과 사회의 일면인 접촉과 교류양상을 추적하려면 먼저 이주민과 재지민의 주거유형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서 박순발(2004)과 이형원(2005)은 주민의 이주리는 전제하에 요중지역의 공주둔 후산 F1주거지와 남양주 수석리 유적의 벽부노지 주거형태를 외래계의 전형적 주거지 형태로 분류한 바 있다. 아직까지 외래계의 주거유형은 이러한 수석리유형 외에는 다른 형태의 유형이 정의된 바 없다.

본고에서 다루는 이 시대 재지계의 취락은 곧 외래계(점토대토기문화)의 유물이 출토되는 주거지를 모두 포함한다. 과거에는 재지집단의 주거유형으로 송국리유형만을 주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현재는 그보다 이른 단계인 역삼동유형도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정여선 2010). 본고에서 검토한 결과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점토대토기문화의 유물이 출토된 주거유형은 가락동·역삼동·포월리·송국리·천전리형으로 청동기시대 전기와 중기 혹은 후기를 대표하는 거의 모든 주거형태가 나타나 지역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는 전기 문화의 요소가 일부분 점토대토기문화의 단계까지 존속하여 지역적으로 병행하는 단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고에서도 선행연구들을 따라 외래계(수석리유형)와 재지계(가락동유형·역삼동유형·송국리유형·천전리유형·포월리유형)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송국리유형이 주 분포를 이루는 호서지역은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지역은 이형원(2015)이 지적한 것처럼 분류가 애매한 경우가 있었다. 왜냐하면 평면(장)방형의 장축노지가 조성된 주거지는 점토대토기문화 이주 집단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재지계의 주거유형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지가 벽부에 있거나 치우치지 않은 형태의 주거지는 그 차이점을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수석리와 교성리 유적에서는 벽부노지와 장축노가 혼재하며(이형원 2015), 이중 장축노지는 중앙이 아니라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설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는 외래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후대의 삭평이나 교란 등의 이유로 유형을 파악하기가 불확실한 주거형태는 불명과 기타로 처리하였다.

〈표 1〉 한반도 중부지방 점토대토기문화 생활유적 분류(○ : 공반, △ : 추정, 수 : 수혈)

지역	번호	유 적 명	주 거 유 형							입 지
			수석리	역삼동	가락동	송국리	천전리	포월리	불명 & 기타	
경 기 지 역	1	문산 당동리							원삼국	구릉
	2	부천 여월동	○	○						구릉
	3	서울 대모산	△						○	고지
	4	서울 홍련봉							○	고지
	5	수원 율전동							○	구릉
	6	시흥 오이도								패총
	7	남양주 수석리	○							고지
	8	오산 내삼미동							○(수)	구릉
	9	오산 청학동							○	구릉
	10	오산 가장동							○	고지
	11	용인 대덕골							○(수)	구릉
	12	용인 농서리							○(수)	구릉
	13	이천 이치리							○	구릉
	14	인천 영종도								패총
	15	인천 오류동							○(수)	구릉
	16	인천 원당동	○						○(수)	구릉
	17	화성 동학산							○	고지
	18	화성 도이리							구상	구릉
호 서 지 역	19	공주 장원리				○				구릉
	20	대전 노은동							○(수)	구릉
	21	대전 궁동				○				구릉
	22	대전 가오동				○				구릉
	23	보령 교성리	○							고지
	24	보령 진죽리				○				구릉
	25	보령 관창리 B,G				○				구릉
	26	부여 나복리				○				구릉
	27	서산 도당리							요지	평지
	28	서천 도삼리				○				구릉
	29	서천 월기리				○			○	고지
	30	서천 주동리							○	구릉
	31	서천 봉선리				○				구릉
	32	아산 대추리	○			○				구릉
	33	아산 풍기동		○					○(수)	구릉
	34	안성 반제리	○							고지
	35	청양 학암리		○						구릉
영 동 지 역	36	강릉 방동리 B	○					○		고지
		강릉 방동리 C	○				○			고지
	37	강릉 송림리							○(수)	구릉
	38	강릉 유천동	○							구릉
	39	강릉 입암동			○					구릉
	40	고성 삼포리					○			구릉
	41	고성 송현리 B	○					○		구릉
		고성 송현리 C	○			○				구릉
		고성 송현리 D	○			○		○		구릉
	42	고성 제진리						○		구릉
	43	고성 철통리	○					○		구릉
	44	고성 초도리	○			○				구릉
영 서 지 역	45	고성 화포리	○						○	구릉
	46	안양 지리							○	구릉
	47	영월 삼옥리							○(수)	구릉
	48	춘천 거두리		○						평지
	49	춘천 거두 2구	○				○			평지
	50	춘천 금산리		○	○					평지
	51	춘천 우두동					○			평지
	52	춘천 천전리					△		○(수)	평지
	53	춘천 칠전동	△							고지
	54	춘천 현암리	○						○	평지
	55	평창 중부리			○					평지
	56	화천 거례리	○				○			평지
	57	홍천 철정리			○		△			평지

3. 단계설정

점토대토기문화의 편년 연구는 연구자들의 이견들이 있지만, 취락연구 성과와 비교해서는 연구량이 많은 편이다. 박진일(2006, 2007)은 일부 개별 유물의 형식과 조합상을 기준으로 큰 맥락에서의 단계 설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유물의 여러 속성을 세분화한 형식분류는 오히려 이 문화를 편년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필자도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편년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진영민 2015).

한반도 중서부지방 점토대토기문화의 편년은 4단계로 설정하였는데, I 단계는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성립기로 환형·조합식우각형과수, 뉴(점토대토기 건부에 꼭지가 붙어있는 형태)·무이 원형점토대토기, 단각 공심형 두형토기, A(구연부가 직립하는 형태)·B형(구연부가 벌어지는 형태) 흑색마연장경호의 유물조합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박진일(2007) 편년의 I·II단계와 같다. 중심연대는 기원전 4세기 중후반 ~ 4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II단계의 획기는 이전의 환형과수는 소멸하고 새로이 장각 공심형의 두형토기가 등장한다. 이 단계에 세형동검문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박진일의 편년 III단계와 같다. 중심연대는 기원전 3세기 초반이 적당하다. III단계는 덮개인 완형개의 등장을 획기로 설정하였지만, C형(구연부가 직립하다 끝부분에서 살짝 외반하는 형태)의 흑색마연장경호도 있다.²⁾ III단계의 상한과 하한의 근거는 뚜렷하지 않지만, 이전의 I~II단계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단계의 중심연대는 기원전 3세기 중반부터 기원전 3세기 말 또는 기원전 2세기 초엽으로 편년된다. 그러나 호서지역에서 아산만지역을 제외한 서해안지역과 금강유역에서는 III단계 이후의 유적이 보이지 않는다. 전술한 것처럼 III단계 설정의 표지적인 유물은 완형개의 출토 유무이기 때문에 완형개가 출토되지 않음으로 이 지역은 II단계 이후 유적의 공백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후 철기의 유입과정과 분포를 보았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적인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IV단계는 봉상과수, 시루, 실심형 두형토기가 공반되는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단계로 기원전 2세기 이후로 편년된다. 한편, 철기의 유입은 III단계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연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전북지역 중심의 완주 갈동 유적 등에서 전국계 철기가 원형점토대토기와 공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최말기에는 이미 철기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철기의 유입시점³⁾은 잠정적으로 III단계(기원전 3세기 중반 ~ 기원전 3세기 후반)의 어느 시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한편, 이번에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하여서 재검토한 결과 춘천 현암리유적 55호 주거지와 오산 청학동 환호에서 C형 흑색마연장경호가 조합식우각형과수와 공반하는 것이 확인되어 II단계부터 등장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개체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편년의 근거로서 적극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앞서 박진일(2014)은 마한지역(중서부지역) 철기의 등장 시점을 기원전 3세기인 250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판단한 바 있다.

〈표 2〉 한반도 중서부지방 점토대토기문화 생활유적 순서배열표 행열조작(● : 공반 ▲ : 추정, 진영민 2015)

구 분		과 수			점 토 대 토 기			두 형 토 기			흑색마연장경호			유구석부		기 타		단계
유적명 ⁴⁾	유구명	環形	牛角形	棒狀形	無耳	鈕耳	三角形	空心 短脚	實心 長脚	長脚	A	B	C	A형	B형	蓋	甗	
남양주 수석리	3호 주거지	●			●													I
보령 교성리	5호 주거지				●			●										
보령 교성리	6호 주거지	●			●	●												
수원 읍전동	4호 수혈	●				●												
안성 반제리	5호 구상유구	●	●		●	●					●							
안성 반제리	21호 주거지	●	●		●	●												
공주 장원리	1호 주거지	●	●		●	●		●										
아산 대추리	12호 주거지	●	●		●	●		●										
부천 여월동	IV-1호 주거지	●	●		●	●		●			●							
파주 와동리	21-11호 주거지	●	●		●	●		●			●							
안성 반제리	9호 주거지	●	●			●						●						
보령 관창리	KC-79호 주거지	●	●		●			●										II
아산 풍가동	2호 수혈		●		●	●		●	●		●	●						
용인 농서리	II-21호 수혈(주)		●		●			●			●	●						
아산 풍가동	2호 구상유구		●		●	●		●	●									
화성 동학산	15호 수혈		●		●													
서울 대모산	주거지		●		●													
춘천 칠전동	Feature 1		●		●	●												
춘천 칠전동	Feature 3		●		●	●		●	●									
안성 반제리	13호 주거지		●		●			●大形										
이천 이치리	1호 주거지		●		●			●	▲									
춘천 칠전동	Feature 2		●		●													
부천 여월동	II-8호 수혈		●		●	●		●										
오산 내삼미동	27호 수혈(주)		●			●												III
아산 대추리	3호 주거지		●		●			●										
아산 풍가동	3호 수혈		●		●			●										
서천 도삼리	KC-004		●		●	●		●	●									
고성 화포리	A-7호 주거지		●		●									●				
고성 송현리	C-2호 주거지		●		●									●				
고성 송현리	C-20호 주거지		●		●													
고성 제진리	D-2호 주거지		●		●													
고성 제진리	D-4호 주거지		●		●			●										
고성 초도리	7호 주거지		●		●	●			●									
고성 초도리	4호 주거지		●		●													
강릉 송림리	12호 수혈		●		●													
강릉 방동리	C-10호 주거지		●		●													IV
강릉 방동리	C-1호 주거지		●		●									●	●			
용인 대덕골	2호 수혈(주)		●		●	●		●	●							●		
용인 대덕골	4호 수혈(주)				●			●	▲				●			●		
아산 풍가동	4호 수혈				●				●							●		
아산 풍가동	1호 구상유구		●		●	●			●							●		
고성 화포리	A-4호 주거지				●											●		
강릉 방동리	C-9호 주거지				●											●		
화성 도이리	1호 구상유구		●	●	●		●	●	●								●	
서산 도당리	13호 소성유구		●	●	●													
화성 도이리	2호 구상유구		●	●	●		●		●									
서산 도당리	유물포함 1층				●		●		●									
서산 도당리	유물포함 2층				●		●		●									

4) 이전 논문(진영민 2015)에서는 보령 진죽리 유적 8호 주거지와 강릉 방동리 유적 C-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파수를 환형파수로 이해하였으나 재확인한 결과 조합식우각형에 가깝다고 판단되기에 이전의 순서배열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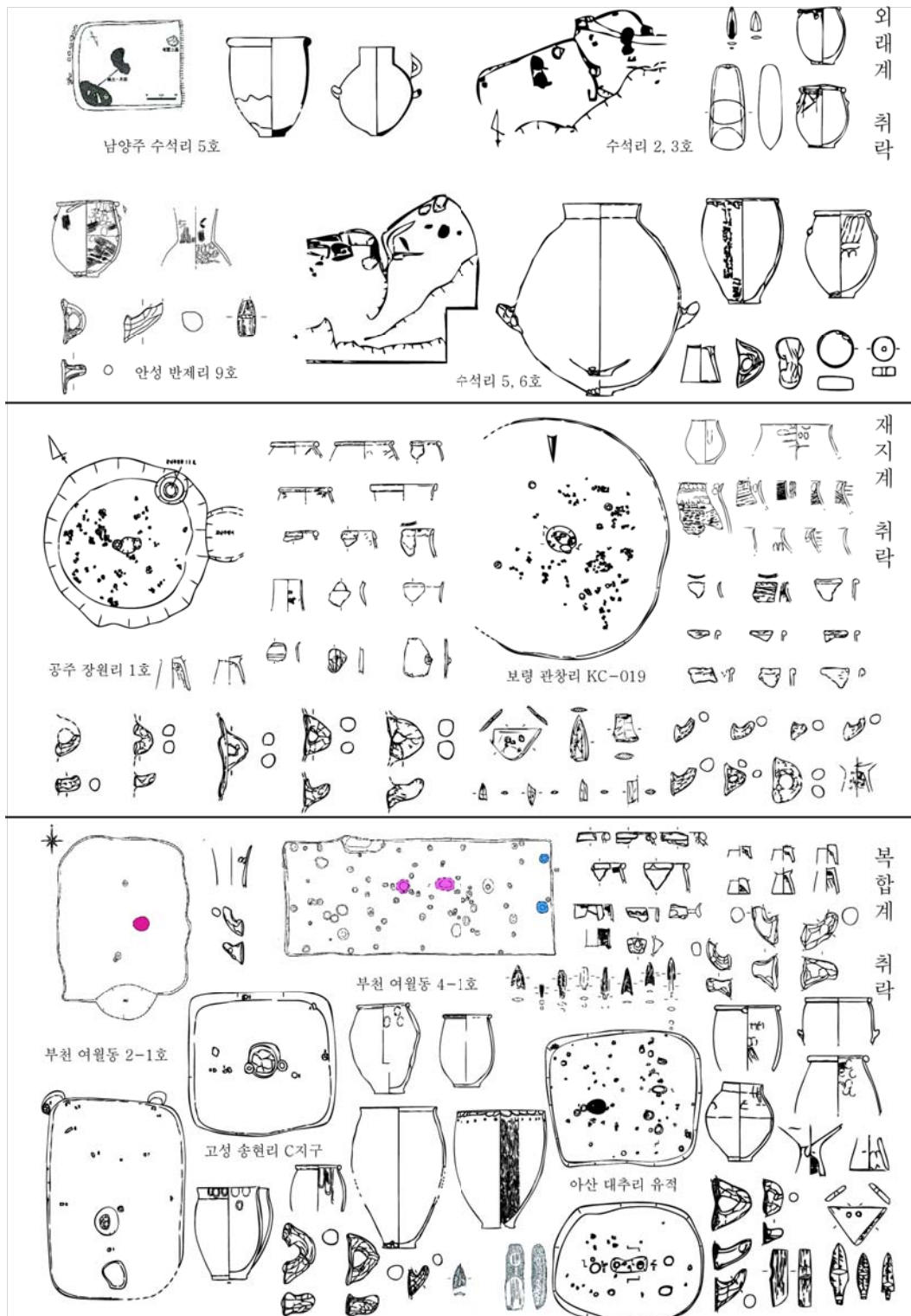
III. 취락구조와 유물

여기서는 단계별로 각 취락의 세부적인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취락 규모는 보령 교성리가 주거지 9동으로 외래계 취락의 일반적인 규모이고 재지계 취락은 10~15동 사이가 중심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10동 이상을 중형, 그 이하를 소형, 그리고 30동 이상의 주거군을 이루는 취락을 대형으로 설정하였다.

1. I 단계 취락

I 단계는 한반도에서 원형점토대토기문화가 최초 등장하는 시기로 점토대토기문화 성립기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외래계 취락은 경기·호서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는데, 4개소 중 3개소가 고지성에 입지하고 있다. 점토대토기문화 취락의 고지성 입지는 이전부터 주목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초기 이주집단이 재지문화와의 충돌을 우려하여 이처럼 높은 산상이나 고지대에 입지한 것으로 이해한 견해가 있었다(권오영 1996; 박순발 1997). 한편, 주거규모는 거의 소형으로 분포하지만 안성 반제리 유적과 같은 대형의 취락도 등장하며, 반제리에서는 자연석을 이용한 제단이 취락 중심부에서 조사되었는데, 이와 같이 자연석을 사용한 제단의 흔적은 시기와 관계없이 다른 취락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반제리와 수원 읍전동 유적에서는 환호가 조성되었다. 이 단계 외래계 취락에서 관찰되는 재지계의 문화는 다음과 같다. 보령 교성리 유적 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점토대토기 웅은 중·형의 타날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서해안지역의 송국리문화 유적들에서 자주 보이는 제작기법이다. 안성 반제리 유적의 초기철기 9호 주거지에서는 적색마연된 장경호의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편이긴 하지만, 기형상 흑색마연장경호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장경호를 적색으로 마연하는 방식은 재지문화 적색마연토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즉, I 단계 외래계 취락에서부터 모방절충토기(이형원 2015)와 같은 문화접변의 흔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때부터 이미 무덤들이 취락군에 포함되어 조성되기 시작한다.

재지계 취락은 호서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 모두 송국리문화의 주거유형들이고 입지는 보편적인 구릉지대에 있다. 주거규모는 소형과 대형이 있는데, 대형취락으로는 보령 관창리 유적이 대표적이다. 이 중 외래계 유물이 출토된 주거지는 KC-019·079이다, 여기서는 재지계의 전형적인 유물인 송국리식 외반구연토기, 구순각목문토기, 타날문토기, 적색마연토기에 원형점토대토기, 환형·조합식우각형과수, 삼각형석촉 등이 공반 출토되었다. I 단계 재지계의 취락에서는 일부 주거지에서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어 이주 집단과의 접촉 및 교류 양상이 관찰되지만 주거지 출토 유물에서 접변을 상징하는 흔적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나 무덤에서는 인접한 F지구 웅관묘에서 조합식우각형과수가 붙은 외반구연호가 있어 접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2〉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 단계 주거와 유물(주거지 1/200, 토기 1/15, 석기·파수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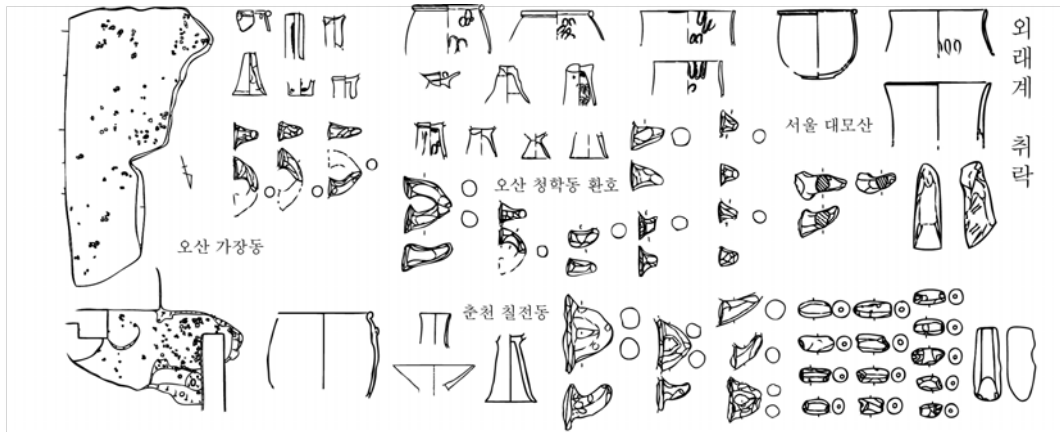
외래계와 재지계 주거지가 한 취락내 공존하는 복합계 취락은 경기·영동·호서지역에서 분포한다. 취락은 주로 구릉들에 입지하며, 지역권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주거유형으로 확인된다. 경기 지역의 부천 여월동 유적 IV지점 1호 역삼동형 세장방형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 석검, 삼각만입촉, 일·이단경식석촉에 외래계 유물인 원형점토대토기, 환형·조합식우각형과수, 단각 공심형 두형토기, 삼각형석촉이 공반된다. 영동지역의 고성 송현리 유적 B지구와 C지구는 서로 인접한 구릉에 바로 붙어있어서 동일 취락으로 볼 수 있다. B, C지구에서는 수석리유형, 송국리유형, 포월리유형이 있는데, 재지계의 주거유형 중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은 타원형수혈 및 중심 2주공이 있는 송국리유형이거나 중심 2주공만 있는 유사 송국리유형이다. 주거지의 중복관계는 거의 없고 경사면을 따라 열상으로 배치된다. 출토 유물을 보면 대체로 송국리식 외반구연토기에 외래계 유물이 공반되는 양상이 확인되며, 거의 모든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므로 오히려 재지계의 유물보다 비율에서는 더 앞선다.

마지막으로 호서지역의 아산 대추리 유적은 17동의 주거지가 확인된 중형 취락이다. 여기서는 수석리유형, 송국리유형의 주거지가 중복관계 없이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방사상의 서로 혼합된 배치로 확인된다. 외래계가 12동이고 재지계가 5동으로 외래계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외래계인 수석리형 주거지에서는 이 단계의 전형적인 유물조합상에 송국리식 외반구연토기, 무문의 발형토기, 유구석부, 일단경촉·삼각형석도가 공반된다. 특히 석기는 재지계의 전형적인 석기들만이 출토되었다. 재지계인 송국리형 주거지는 5동 중 2동의 주거지에서 외래계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여기서는 송국리식 외반구연호, 적색마연호에 원형점토대토기, 장각 공심형의 두형토기가 공반된다.

2. II단계 취락

II단계는 가장 많은 취락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순수 외래계 취락은 경기·영서지역에만 국한되어 분포한다. 경기지역은 2개소를 제외하고는 구릉에 입지하며, 고지성 입지는 서울 대모산·오산 가장동 유적이 있다. 규모는 소형이나 단독 혹은 수혈군으로 모두 상대적으로 이전 단계에 비해 소형취락들을 이룬다. 그러나 오산 내삼미동과 오산 가장동 취락에서는 환호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본래 상당한 규모의 취락이 있었을 것이나, 후대에 삭평되어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뿐이다.⁵⁾ 무엇보다 이 단계에 외래계 취락에서는 서울 대모산 유적을 제외하고는 재지계의 유물이 공반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5) 오산 가장동 유적에서 구상유구로 보고된 유구들은 구획형태를 보았을 때 본래 환호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삭평이 심하게 되어 상부가 유실되었으며, 이 사이 주거지들이 소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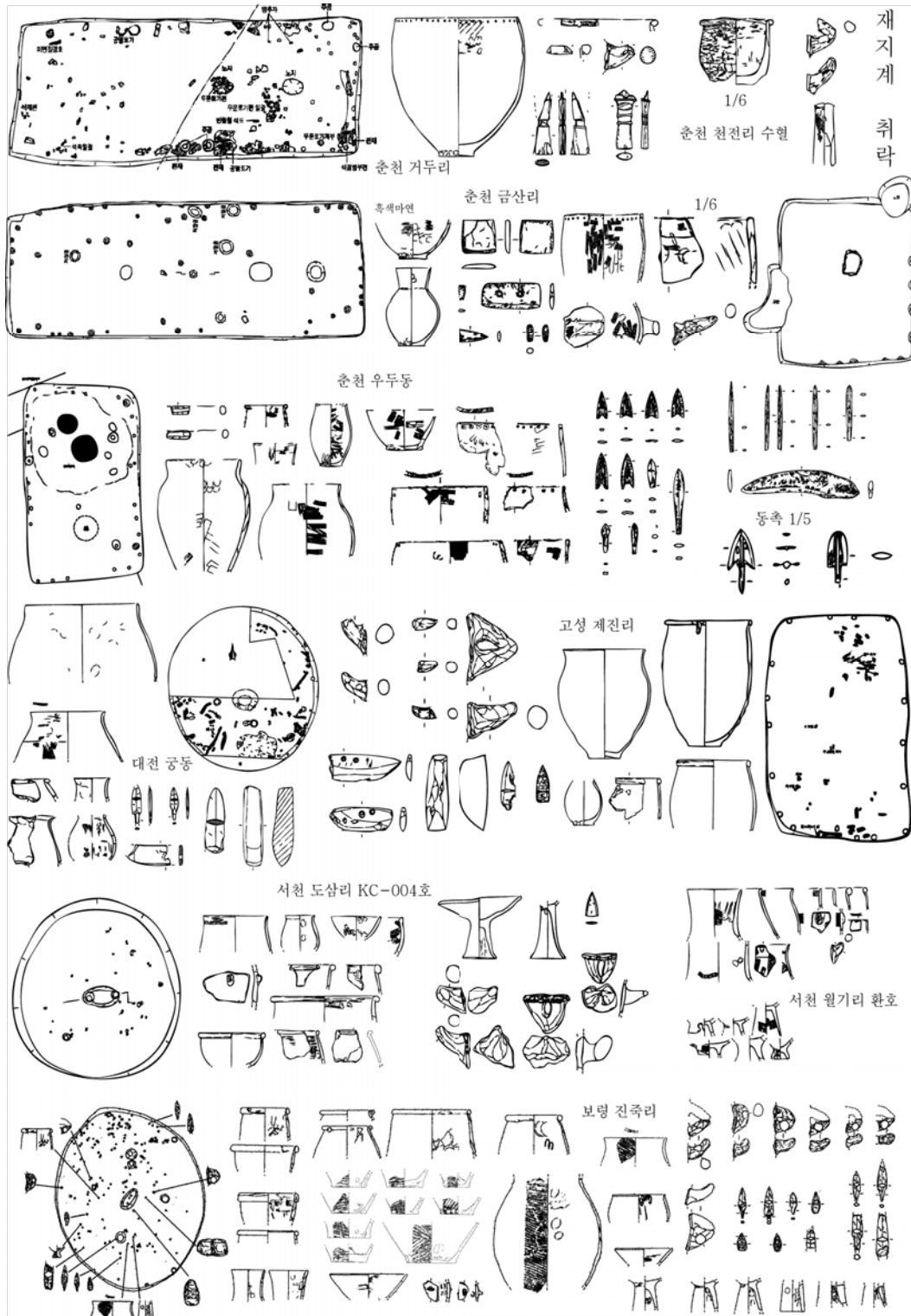


〈도면 3〉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II단계 외래계 주거와 유물(주거지 1/200, 토기 1/15, 석기·파수 1/10)

한편,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지역의 외래계 취락에서만 무덤이 취락군내에 조성되는데, 토광묘 계통의 묘제가 지속된다. 영서지역은 1개소로 춘천 칠전동 유적이 있으며, 전형적인 산상 고지성 입지이다. 명확하게 수석리형 주거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출토유물에서 재지계 유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외래계 취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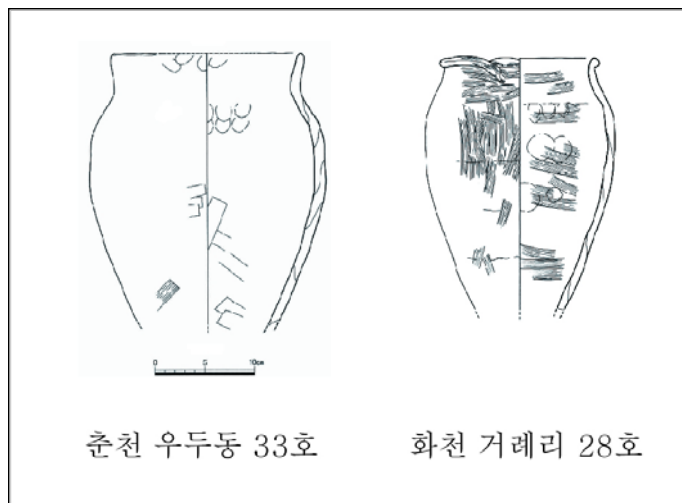
재지계 취락은 영서·영동·호서지역에 분포한다. 영서지역은 모두 평지에 입지하고, 그밖에 영동과 호서지역은 구릉의 입지가 보편적이다. 예외적으로 서천 월기리 유적만 비교적 높은 고지대의 구릉에 입지한다. 취락 규모는 소형·중형이 있으나 중형이 대다수이다. 먼저 영서지역은 춘천 거두리, 금산리, 천전리, 우두동 유적이 있으며, 역삼동유형과 가락동유형의 주거지가 확인된다.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 공렬문의 재지계 토기에 원형점토대토기, 흑색마연장경호, 조합식우각형과수의 외래계 토기가 공반된다. 반면 석기에서는 외래계의 삼각형석촉이 출토되지 않는다. 또한 주거지와 유물 출토 비율의 양상은 유적마다 일률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이 단계 재지계 취락에서 보이는 접촉 및 교류의 근거들을 살펴보면 먼저 춘천 금산리 유적의 B-1호 가락동계 장방형주거지에서 출토된 장경호가 주목된다. 이 흑갈색의 장경호는 마연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흑색마연장경호의 전형적인 기형과 같다. 천전리 유적은 주거지에서는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다-185호 수혈에서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 발이 주목된다. 이 토기는 흑색마연과 구연부 아래 투공이 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태의 점토대토기는 현재까지 천전리 유적에서 발견된 것이 유일하다. 무엇보다 점토대토기의 구연부에 투공을 하는 행위는 재지계의 공렬문토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집단 간의 문화 접변과정에서 제작된 토기로 판단된다.



〈도면 4〉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II단계 재지계 주거와 유물(주거지 1/200, 토기 1/15, 석기·파수 1/10)

춘천 우두동 유적 19호 주거지에서는 대부토기의 대각과 20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직구호가 흑색마연되어있다. 그리고 생활유적적으로는 드물게 청동기가 출토되었는데, 33호 주거지에서 원형 점토대토기, 외반구연심발, 삼각만입촉, 일체형석촉, 양익동촉이 공반되었다. 보고지는 이를 석관묘의 조성 시점과 비슷하게 판단하였다. 우두동 석관묘는 9점의 삼각만입촉, 천하석제 곡옥, 유·무경식의 동촉과 이형 요령식동검이 공반되는데, 삼각만입촉의 모방과 비슷한 형태의 동검이 전기 무덤에서 일부 확인되기 때문에 대체로 전기의 무덤으로 편년된다(이양수 2014). 필자도 석관묘의 조성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주거지와와 동시기성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유적에서는 재지계의 천전리유형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1호, 8호, 19호, 20호, 33호, 35호 주거지에서 외래계 유물이 공반되었다. 이 가운데 전술한 3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외반구연 호는 동 단계 복합계 취락의 화천 거례리 유적 28호 천전리유형 주거지에서 출토된 점토대토기호와 기형적으로 대단히 유사하다(도면 5). 이는 일반적인 점토대토기의 기형으로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춘천 우두동 유적 30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제 입주형 검파두식은 보령 청라면에서 출토된 검파두식과 같은 형식인 점도 주목된다.



〈도면 5〉 II 단계 영서지역 재지계(좌) · 복합계(우) 호형토기 비교(축척부동)

영동지역은 고성 제진리 유적이 유일한데, 주거지 5동의 소형취락으로 이 중 2동에서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었다. 여기서는 외반구연호와 원형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두형토기 대각편, 삼각형석촉이 공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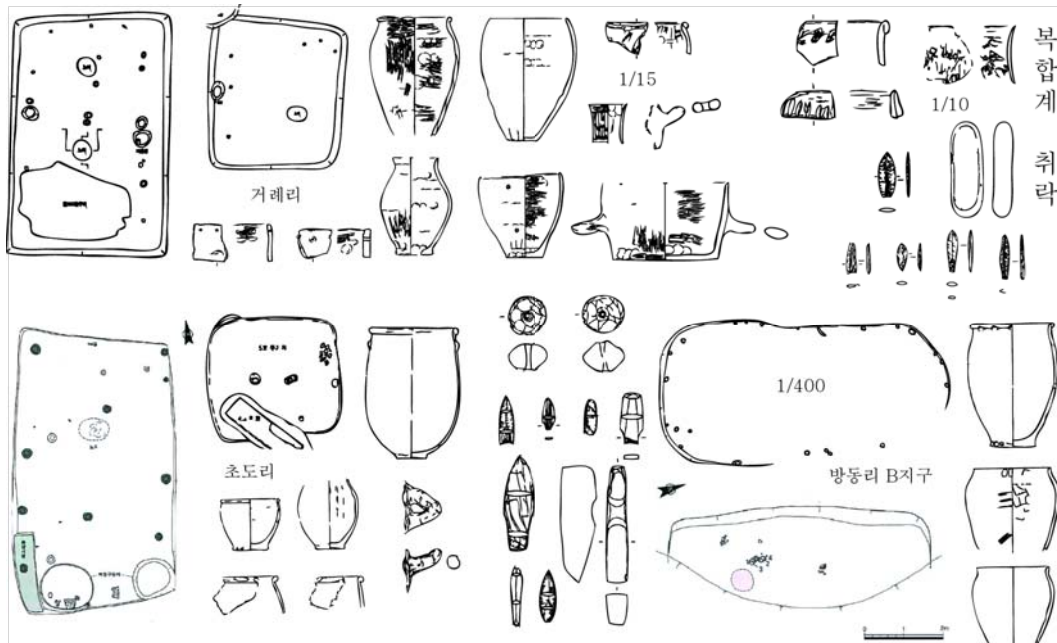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호서지역은 이 단계 가장 많은 취락이 조사되었는데, 총 5개소에 해당되며 모두 송국리문화에 해당되는 취락이다. 이 중 서해안지역의 서천 도삼리·월기리·봉선리 유적은 주거지 11동에서 30동에 이르는 중형급의 취락으로 분류된다. 전술한 것처럼 모두 송국리형 주거지이며,

각 취락내 주거지들 중 1~2동의 소수 주거지에서 외래계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송국리식 외반구연토기, 구순각목문토기, 타날문토기, 적색마연토기가 원형점토대토기, 흑색마연장경호, 조합식우각형과수, 단·장각의 공심형 두형토기와 공반된다. 석기는 일단경식석촉, 삼각형석촉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서천 도삼리·월기리 유적에서는 외래계 유물이 출토된 주거지가 취락공간 배치내에서 가장 높은 정상부 주거지군에 포함된다. 환호가 있는 곳은 월기리 취락뿐인데 출토유물로 보아 점토대토기단계의 환호임은 틀림없지만, 재지계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서 주거지와 동시기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 같은 서해안에 있는 보령 진죽리 유적에서는 11동의 송국리형 주거지 중 5동에서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어서 같은 단계의 지역권내에서도 비율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토기를 구운 가마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원형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과수, 두형토기의 외래계 유물들과 재지계의 타날문토기가 공반되었다. 이 단계 취락내 무덤은 서천 봉선리, 대전 궁동 유적에서 확인되었는데, 대전 궁동의 토광묘에서 원형점토대토기 옹과 적색마연호가 각 1점씩 부장되어 주목된다. 보통 이 단계 무덤에서 원형점토대토기는 흑색마연장경호와 부장되는 것에 반하여 적색마연호가 셋트를 이룬다는 점은 확실한 교류를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서천 추동리 A-10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타날문이 시문된 원형점토대토기도 I 단계 보령 교성리 출토품과 같은 접변을 증명하는 유물이다.

II단계의 복합계 취락은 영서·영동지역이 중심으로 호서지역의 아산 대추리 유적도 있지만, I 단계부터 등장하여 앞서 설명하였다. 영서지역 취락의 입지는 평지이고 영동지역은 각각 구릉과 고지성 입지가 있다. 먼저 영서지역의 화천 거례리 유적은 많은 주거지와 경작유구 등이 조사된 대형규모의 취락이다. 이 유적 천전리유형 주거지에서 외래계 유물이 출토된 비율은 총 44동의 주거지중 6동(11, 20, 24, 28, 33, 34)에서 재지계의 공렬문토기, 외반구연토기, 적색마연토기가 원형점토대토기, 흑색마연장경호, 조합식우각형과수와 공반된다. 석기는 재지계의 일체형석촉과 외래계인 삼각형석촉이 공반된다. 확실한 외래계 주거유형은 43호 주거지만이 노지가 장축에서 벽가에 치우친 수석리유형으로 판단되며, 다른 주거지와는 중복관계는 없고, 원형점토대토기가 재지계의 외반구연토기, 일체형석촉과 공반된다.

영동지역의 고성 초도리 유적은 주거지 7동의 소형취락으로 구릉에 입지한다. (장)방형의 수석리유형 주거지 3동과 말각방형의 중심 2주공이 있는 유사 송국리유형 주거지 1동에서 두 문화의 유물이 공반된다. 먼저 수석리유형의 주거지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과수가 재지계의 외반구연토기, 삼각만입촉, 유경식석촉, 유구석부와 공반된다. 재지계인 유사 송국리유형 주거지는 외반구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된다.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외래계의 문화가 우세하다고 판단된다.



〈도면 6〉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II단계 복합계 주거와 유물(주거지 1/200, 토기 1/15, 석기·파수 1/10)

강릉 방동리 유적은 A, B, C지구로 구분되는데, 유구와 출토유물의 양상이 뚜렷하게 파악되는 곳은 B, C지구이다.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120m가량 이격되어 있는데, 동일한 산상의 구릉상에 입지하여 먼 거리는 아니다. 그러나 B지구와는 다르게 C지구에서만 III단계로 편년되는 원형개가 출토되어서 두 취락군은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B지구는 9동의 주거지 중 형태 확인이 가능한 주거지가 많지 않으나 파괴되었음을 고려해도 노지가 벽가에 붙어있는 형태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외래계의 주거유형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1호 주거지는 말각장방형에 노지 없이 벽주공이 있는 형태인데, 재지계의 주거형태에 가까워서 복합계의 취락으로 본 것이다. 주거지의 배치는 재지계인 1호 주거지만 구릉 정상부에 있고 외래계로 판단되는 주거지들은 모두 사면부에 입지한다. 유물을 보면 먼저 외래계의 주거지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외반구연토기, 유구석부가 공반된다. 재지계의 주거지에서는 외반구연토기, 무경식석촉, 원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되는데, 여기서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 발은 구연부가 내경하다 살짝 외반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점토대토기 발의 기형과는 차이가 있다.

3. III단계 취락

점토대토기문화 III단계는 원형점토대토기 최말기의 단계로 판단되며, 원형개가 등장을 획기로 보고,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발생하기 이전의 단계이다. 이 단계의 취락은 많지 않으나 중서부지방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외래계 취락은 이 단계에는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재지계

취락은 경기·호서지역에서 각 1개소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구릉에 입지한다. 경기지역은 인천 원당동 유적의 4가 지구에서 19동의 주거지가 중복 조사되었는데, 역삼동계 주거유형으로 추정된다. 이 중 가-15호 주거지에서만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었다. 재지계의 구순각목문토기, 공렬문토기, 외반구연토기, 일단경축, 일체형석축이 외래계 유물인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대각편과 공반되었다. 이들 주거군 주변 1호 수혈에서 완형개를 비롯한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어서 III단계로 편년된다.

호서지역의 재지계 취락은 아산 풍기동 유적에서 조사되었는데, 22동의 역삼동형 주거지와 2동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외래계 유물이 출토된 주거지는 역삼동계이기 때문에 송국리유형 주거는 병행하는 단계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서는 이들 역삼동계 주거지를 전기로 파악하고 수혈유구와 구상유구를 점토대토기 단계의 후기로 편년하였는데, 외래계 유물이 출토된 5호 역삼동계 세장방형주거지에서 장각 공심형의 두형토기가 공반되고 3호 수혈과 구상유구에서는 재지계의 외반구연토기, 구순각목공렬문토기, 공렬문토기, 대부토기가 외래계의 전형적인 유물 조합상과 공반된다. 무엇보다 이 유구 간의 중복관계가 없고 5호 주거지가 정상에 단독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후대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즉, 점토대토기문화와 병행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점변양상은 없으나 2호 수혈에서 출토된 흑색마연장경호가 상대적으로 세장화된 소형토기에 해당되고, 이전 단계까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 기형이다. 그런데, 이 취락에서 조사된 1호 토광묘 출토 흑색마연장경호는 배가 부르고 기고가 낮은 형태로 동일 취락의 다른 기형과 차이가 있다. 이를 동일 단계의 다른 기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복합계 취락은 영서·영동지역에 분포한다. 영서지역만 평지이고 영동지역에서는 각각 고지와 구릉에 입지한다.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면 영서지역의 춘천 현암리 유적은 50동이 넘는 주거지가 조사된 대형의 취락이지만, 중복관계를 감안하면 점토대토기단계의 주거지는 10동 이상의 중형 취락으로 분류된다. 주거지 중 외래계로 판단되는 52, 57, 58호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 흑색마연장경호, 조합식우각형과수, 단각 공심형 두형토기, 완형개, T자형 검과두식과 공렬문토기, 외반구연 발형토기들이 공반된다. 수혈유구에서 출토되는 양상도 이와 동일하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문화층에서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 구연부편으로 평양 남경 유적 출토품과 흡사하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었다(예맥문화재연구원 2011; 이형원 2015). 따라서 점토대토기문화 이주 집단의 대동강 유역 경유설(박순발 2004; 김미경 2006; 이형원 2015)을 입증하는 근거 중 하나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도면 7〉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III단계 주거와 유물(주거지 1/200, 토기 1/15, 석기·파수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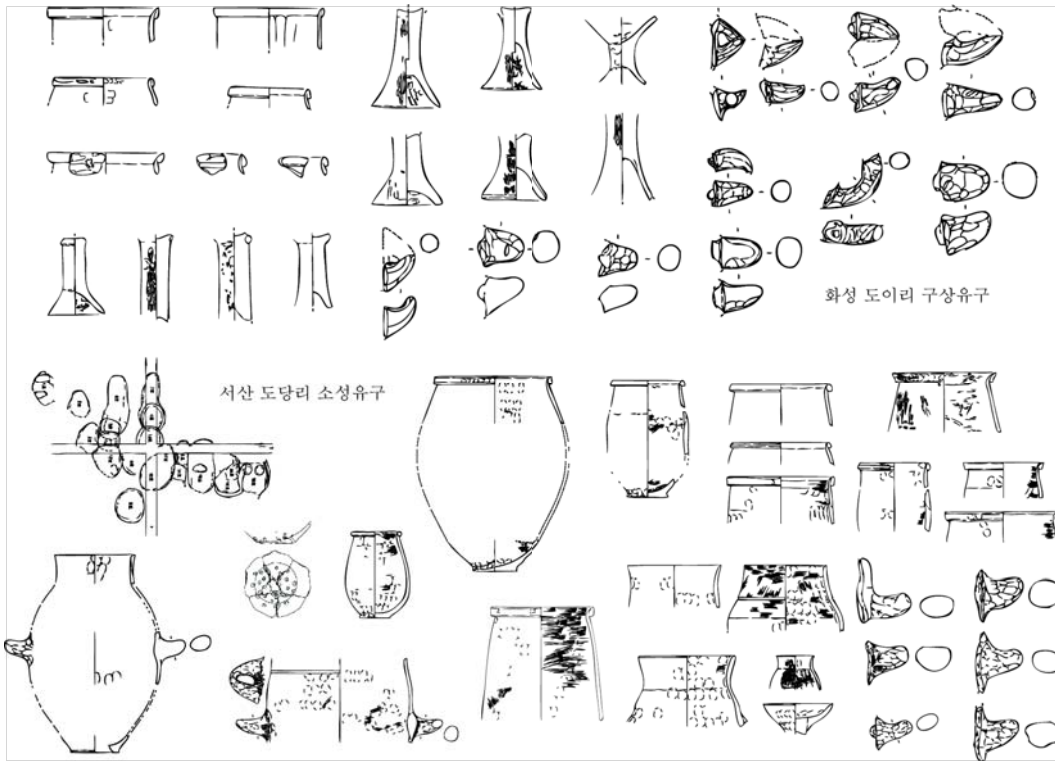
영동지역의 강릉 방동리 C지구는 많은 주거지와 환호가 조사되었으며, 중복관계를 감안해도 거의 중·대형급의 취락으로 판단된다. 주거지들은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환호 안 밖에 조성되었는데, 대부분 환호의 안쪽에 입지한다. 반면 수혈은 환호의 바깥에 있어 구획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외래계 주거와 재지계의 천전리유형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파괴가 심하여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주거지도 많다. 그래도 대다수의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 외반구연토기가 공반 출토되는데, 여기에 조합식우각형파수, 흑색마연장경호, 적색마연호, 단각 공심형의 두형토기, 삼각형석촉, 삼각만입촉, 유구석부 등이 공반된다. 여기서는 분명한 교류와 접변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뚜렷하게 확인 되었는데, C-1호 가마에서 적색마연호와 외반구연호, 점토대토기가 공반 출토되어 동일 주민집단 제작의 가능성이 먼저 상정된다(이형원 2015). C-2호 저장유구에서 출토된 외반구연파수부호는 외반구연토기에 조합식우각형파수가 붙은 형태로 관창리 유적의 웅관묘에서 보이는 것과 기형상으로 유사하다. 그밖에 주거지와 환호 등에서 출토된 점토대토기는 분명 전형적인 기형에서 벗어난 형태가 뚜렷한 편으로 이 지역만의 특징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성 화포리 유적 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파수부호는 기형이 점토대토기문화 I 단계 남양주 수석리나 보령 교성리에서 출토되는 파수부호와 다르고, 보령 관창리나 이후 다른 유적의 웅관묘로 사용되는 장경의 세장화된 파수부호와도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4. IV단계 취락⁶⁾

IV단계는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단계로 중서부지방에서는 경기·호서지역에서만 일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주거지가 확인된 사례가 이 지역에서는 문산 당동리 유적의 취락처럼 부뚜막이나 고래가 설치되어 이미 원삼국 시기로 편년되는 주거지밖에 없다. 이는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중심지인 영남지방을 통해 보아도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확인된다(김나영 2007; 이정은 2012). 그 외 중서부지방에서 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유구는 구상유구와 소성유구 정도이다. 경기지역의 화성 도이리 유적에서는 구상유구에서 외래계 유물이 출토 되었는데, 웅과 발형의 원형·삼각형점토대토기와 조합식우각형·우각형·봉상파수, 장각 실심형 두형토기, 완형개, 삼각형석촉, 석검편이 공반된다. 호서지역의 서산 도당리 유적에서는 가마로 추정되는 소성유구들이 다수 중복되어 조사되었다.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의 소성유구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점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은 원형·삼각형점토대토기가 시루, 그리고 이 단계의 전형적인 파수들과 공반된다. 정리하면 IV단계에는 비록 대상유적이 적지만 이전 III단계까지 보이던 재지계의 유물이 관찰되지 않는다.

6) 중서부지방에서 이 단계에 해당되는 유적이 회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렵다. 보다 자료가 풍부한 남부 지방의 취락과 함께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8〉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IV단계 유구와 유물(주거지 1/200, 토기 1/15, 석기·파수 1/10)

〈표 3〉 시기 · 지역별 취락구조와 특징

시기 구분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IV 단계
외래계 취락	입 지	고지(75%) 구릉(25%)	고지(42.8%) 구릉(57.2%)	X	
	취락구성	주거지, 수혈, 환호, 제단	주거지, 수혈, 환호		
	무덤복합	토광묘	토광묘		
	규 모	소(25%), 중(50%), 대(25%)	단독(29%), 소형(71%)		
	유 물	미접촉, 교류, 접변	미접촉, 교류		
	지 역	경기·호서	경기·영서		
재지계 취락	입 지	구릉(100%)	고(10%), 구(50%), 평(40%)	구릉(100%)	X
	취락구성	주거지, 수혈	주거지, 수혈, 환호, 가마	주거지, 수혈	
	무덤복합	옹관묘	토광묘, 석관묘	토광묘	
	규 모	소형(50%), 대형(50%)	소(10%), 중(70%), 대(20%)	중형(100%)	
	유 물	교류, 접변	교류, 접변	교류	
	지 역	호서	영서·영동·호서	경기·호서(아산만)	
복합계 취락	입 지	구릉(100%)	고(25%), 구(50%), 평(25%)	고(33%), 구(33%), 평(33%)	평지(50%) 구릉(50%)
	취락구성	주거지, 수혈	주거지, 수혈	주거지, 수혈, 가마	패총, 구상, 가마
	무덤복합	석관묘	•	•	•
	규 모	소(33%), 중(33%), 대(33%)	소(25%), 중(50%), 대(25%)	소형(33.3%), 중형(66.7%)	•
	유 물	교류	교류, 접변	교류, 접변	접변
	지 역	경기·영동·호서	영서·영동·호서	영서·영동	경기·호서

IV.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취락의 변천과 성격

1. 취락의 변천과정

〈표 3〉은 단계별 취락구조의 특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유물은 접촉 및 교류, 접변의 2단계로 구분하였다. 단계적으로 보면 접촉 다음에 교류가 있었을 확률이 높지만 실제로 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I 단계부터 등장하는 복합계 취락은 외래계와 재지계의 주거 집단이 공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류의 단계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복합계 취락유형 유적들의 유물조합상이나 출토 비율의 양상들이 일률적인 경향성을 보이지가 않는다. 즉, 당시 취락들의 교류 양상은 그 집단의 성향에 따라서 다변적(김장석 2002)일수가 있기 때문에 더 세분하지 않겠다. 다만, 점토대토기문화 II단계의 외래계 취락에서는 서울 대모산 유적 외에는 재지계 유물이 공반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접촉 이전의 미접촉을 상정할 수 있다.⁷⁾ 접변은 두 문화의 기술이 조합된 새로운 유물의 출토유무를 기준으로 설정한 개념이며, 모방절충토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외래계 취락은 점토대토기문화 I 단계 ~ II단계까지 존속하고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 I 단계에는 4개소로 경기·호서지역에서 등장하며 고지성 입지가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취락은 주거지, 수혈, 환호, 자연석을 이용한 제단으로 구성된다. 규모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등장하나 대다수는 소형과 중형이다. 유물은 접변의 단계까지 확인되는데, 호서지역만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경기지역은 접촉이 없거나 교류의 단계까지만 나타난다. 토광묘 계통의 무덤이 이때부터 취락내에 조성되며, 이후로도 지속된다.

II단계는 6개소로 경기·영서지역에만 분포하며, 1개소를 제외하면 전부 경기지역이다. 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고지성 입지는 줄어들었고 구릉의 입지가 증가한다. 가장 큰 특징은 이 단계 외래계 취락이 호서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취락은 주거지, 수혈, 환호로 구성되고, 규모는 주로 단독이거나 소형으로 확인된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유물에서 접촉 및 교류양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접촉이 상정된다. 서울 대모산 유적에서만 재지계 유물이 출토되었다.

재지계 취락은 I 단계 ~ III단계까지 존속하고 I 단계는 호서지역에서만 2개소로 모두 구릉에 입지한다. 주거지는 모두 송국리유형이며, 규모는 소형과 대형이다. 유물은 접촉 및 교류부터 접변의 단계까지 확인된다. 무덤은 관창리 유적에서 발견된 옹관묘가 있다. II단계에 해당하는 유적은 영서·영동·호서지역에 7개소가 있으며, 그 중 호서지역이 4개소로 가장 많다. 입지는 구릉과 평지가 많고 취락 구성은 주거지, 수혈, 환호, 가마로 나타난다. 규모는 중형급 취락이 대부분이다. 유물은 접변의 단계까지 관찰된다. III단계에는 경기·호서지역에 분포하는데, 구릉 입지에 주거지, 수혈로 구성되고 중형 규모의 취락이다. 이 단계에는 접변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7) 전술했다시피 본고에서 다루는 재지계 취락의 자료는 점토대토기문화 유물이 출토된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을 뿐이며, 집단의 성향상 외부 이주민들과 접촉 및 교류를 단절한 집단들도 이 단계까지 존속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복합계 취락은 I 단계부터 등장하여 이후로도 지속된다. I 단계의 유적은 경기·영동·호서지역에 분포하고 4개소이다. 입지는 모두 구릉에 입지하며, 규모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있다. 주거와 유물의 조합상 및 출토비율을 보았을 때 접촉 및 교류가 있었음이 추정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는 아직 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 단계에만 취락군내에 무덤(석관묘)이 조성되고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는다. II단계의 유적은 영서·영동·호서지역에 분포하고 입지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고지성은 강릉 방동리(B지구) 유적에서만 확인된다. 평균 중대형의 취락이고 취락구성은 주거지와 수혈로 전 단계와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유물은 접변의 단계까지 확인된다. III단계의 유적은 영서·영동지역에 분포하고 입지는 전술한 것처럼 강릉 방동리(C지구) 취락만 고지성이며, 다른 유적은 구릉에 입지한다. 그리고 영서지역은 평지에 입지한다. 규모는 소형과 중형 사이가 대다수이고 취락구성에는 가마가 새롭게 출현한다. 이 가마에서는 채지계와 외래계 토기가 동시에 제작되는데, 확실한 접변의 근거로 볼 수 있다(이형원 2015). 마지막 IV단계는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 단계로 경기·호서지역에만 분포한다. 그러나 취락구조를 추정할만한 자료가 적고, 주거지는 원삼국 주거지외에는 보이지 않고, 패총과 구상유구가 대부분이다. 한편, 이 단계의 유적으로 서산 도당리 유적에서 토기를 구운 다량의 소성유구(가마)가 중복 확인되었는데, 이 당시에도 주변일대에 취락군이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각 취락유형들을 살펴본 결과 이 시대에는 대형의 취락은 많지 않고 외래계 취락은 상대적으로 취락규모가 더 적고 채지계 취락은 거의 10~15동 규모의 중형 취락들이 대다수이다. 한편, 이 시대 외래계 주거지의 형태는 (장)방형이고, 면적도 가락동 및 역삼동계의 세장방형과 같은 대형주거지는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는 청동기시대 전기 이후 대형주거지에서 소형주거지로 변화하는 연장선상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며, 이는 점토대토기문화 유입 이후로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2. 이주 집단과 선거주집단의 접촉과 교류

주지하다시피 한반도의 점토대토기 문화는 주민 이주에 의한 발생을 대전제로 이해되고 있다. 그 개시연대에 대해서는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이견들이 있는데, 초창기의 연구(박순발 1993b; 이진무 1994)부터 최근의 연구들(이창희 2010; 이형원 2011; 박진일 2013; 김민정 2014; 진영민 2015)까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이 문화 개시의 시점에 관계없이 이주 집단이 한반도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거주집단과의 상대적인 영향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크게 재편론(박순발 1997; 이형원 2005; 中村大介 2008)과 흡수론(김성남·허진아 2008; 김장석 2009; 송만영 2011)에 가까운 견해들이 있었다. 재편론은 이주 집단의 사회가 채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우월한 문화로 곧 이들 사회를 재편하고 통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고, 흡수론은 이주는 분명히 있었으나 그 역량은 상대적으로 채지 집단에 비해 열세이

므로 곧 재지 집단의 사회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편론과 흡수론 앞에는 갈등론의 단계가 제기되고 있다. 갈등론은 이주 집단과 재지 집단이 취락과 자원의 영역권내에서 서로간의 견제와 무력 충돌이 있었다고 보는 입장인데, 외래계 취락의 고지성 입지⁸⁾를 갈등의 증거로 주목한 견해들이 있었다(정정원 1991; 권오영 1996; 박순발 1997; 노혁진 2001).

본고에서 검토한 결과 고지성 입지는 외래계 취락 I 단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충분히 초기 이주 집단의 갈등론을 상정할만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호서지역의 서해안과 아산반 일대에만 집중되는 점이 주목된다. 그간 점토대토기문화의 이주경로를 한반도 중서부지역 서해안의 해로를 통해 최초 유입되었음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던 만큼 정황적으로도 모순이 없는 결과이다.

그러나 그 갈등이 오래 지속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 단계 외래계 취락을 제외하고 고지성 입지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⁹⁾ 그리고 이른 시기부터 이주 집단과 선거주집단의 접촉 및 교류에 대한 근거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송국리문화가 지배적이었던 호서지역에서는 점토대토기문화 성립기인 I 단계부터 접변을 추정할만한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안성 반제리의 적색마연된 장경호나 보령 교성리의 타날문 원형점토대토기, 보령 관창리 옹관묘의 우각형과수부호는 이에 해당되는 자료이다. 복합계 취락인 아산 대추리 유적에서는 두 집단의 공존 양상이 확인된다. 또한 호서지역에서 외래계 중심 취락은 I 단계 이후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근거를 종합하면 호서지역에서는 이미 I 단계의 어느 시점에 두 집단 간의 갈등이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른 지역을 보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지역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복합계의 취락은 II 단계 이후로 보이지 않는데다 복합계 취락에서는 I 단계부터 환호와 같은 적극적인 방어시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표적 고지성 입지인 보령 교성리에서 접변을 증명하는 토기가 출토된다는 점을 보면 고지성 입지라고 해서 정황적으로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판단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 동일한 시기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송국리문화가 지배적이었던 호서지역은 이주 집단에 대해 가장 열려있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¹⁰⁾

반면 다른 지역의 취락유형에서는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되는데, 무엇보다 취락의 접촉 및 교류와 접변 양상은 시기에 따라 일률적인 경향의 지역성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같은 시기에 동일한 지

8) 이 고지성 입지에 대해 이주 집단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입지 경향이라는 견해(이성재 2007)와 제의행위와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송만영 2011)가 있다. 하지만 전자는 요령지역 무덤유적의 입지를 주목하였기 때문에 생활유적 입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9) 고지성 입지의 단계간 점유의 가능성은 입지적 특성상 생계경제 한계의 이유로 이미 지적된 적이 있었다(이형원 2005).

10) 아직 적극적인 근거는 없으나 이주 집단이 서해안 해로를 통해 중서부지역으로 바로 정착을 시도한 것도 이주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접촉 혹은 인적교류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해 사전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정황상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역권 내에서도 유적에 따라 주거의 구성 비율 및 유물 양상에서 차이가 있어 집단들의 다양한 성향이 상정된다(이형원 2015).

3. 문화접변과 사회의 통합

사회적인 해석에는 전술한 것처럼 재편론과 흡수론이 주류인 가운데, 흡수론이 제기된 결정적 이유는 세형동검문화를 대표하는 묘제와 마한의 성립 사이에 있는 편년의 공백 문제이다(김장석 2009). 김장석은 적석계의 목관, 석관, 토광묘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소위 이 문화의 전형적인 묘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현저한 생활유적 부재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무덤의 주인을 지배층이라 본다면 당시 피지배층이 되는 주거문화는 송국리유형의 취락으로 본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지역 송국리문화 연대의 하한을 더 내려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필자도 동의한다. 그리고 점토대토기문화를 발생시킨 이주 집단은 그 성격이 피난민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이 재지계 사회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재편론 보다는 흡수론에 무게를 두었다고 생각된다. 송만영(2011)은 취락의 선후관계에 대한 편년 문제를 거론하며, 庄田愼矢(2009)¹¹⁾의 노지 위치에 따른 편년을 인용하여 중서부지역의 유적이 점토대토기문화에서 상대적으로 이르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고지성 입지 또한 이전부터 있었던 천제의례와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벌어진 취락의 이합집산의 분산 결과와 생업경제방식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고지성 사회경제적 연결망으로 이해한 바 있다.

이와 반대되는 재편론의 견해는 외부 이주민 집단이 초기에는 고지성에 입지하는 갈등의 단계를 거쳐서 우월한 기술과 선진 정치·사회적인 경험을 토대로 토착 지식묘사회를 장악하고 새로운 사회질서에 의해 재편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다(박순발 1997). 물론 이러한 변화의 동인에 대해서는 이주민과 선주민 양 집단의 전략적 작용-반작용(김장석 2002)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보았다(이형원 2005). 결국 흡수론과 재편론의 두 입장 모두 이후 사회의 변화에서 외부 이주민 집단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인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처럼 분명한 차이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먼저 흡수론의 해석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묘제에 표지적인 유구인 적석계의 무덤들은 기존 한반도 청동기사회에 있던 재지계통의 무덤과는 궤를 달리하는 매우 이질적인 형태로 요동지역에서 등장하는 외래계의 묘제라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부장되는 유물은 세형동검과 동경을 비롯한 여러 이형동기류가 있으며, 토기는 원형점토대토기와 흑색마연장경호가 주로 부장될 뿐 적색마연호가 아주 적은 양상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재지계의 토기가 부장되지 않는다.

둘째는 한국식 세형동검과 동경을 비롯한 화려한 청동문화의 발생에 대한 문제이다. 이들 동기류는 점토대토기문화를 기점으로 양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다. 또한 첫 번째와

11) 이에 대한 반론은 이형원(2015)의 논고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필자도 동의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기류와 부장되는 토기는 거의 예외없이 점토대토기·흑색마연장경호가 셋트를 이룬다. 흑색마연장경호는 차치하더라도 점토대토기가 재지민의 일상생활토기를 대체할 만큼 기능적으로나 문화적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당시 한반도 주변지역의 무덤에서 동기류와 부장되는 토기가 점토대토기만으로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거의 점토대토기가 부장 토기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 사회가 점토대토기문화 이주 집단이 재지 집단의 사회에 흡수되는 양상으로 가깝게 진행되었다면, 이 모든 과정을 개연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 이주민 집단이 재지 집단에 상대적 역량의 열세를 이유로 흡수되었다고 보는 것 보다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재편론도 당시 중서부지역 무덤의 분포수와 비교했을 때 외래계 취락유적의 상대적 부재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만 한다(김장석 2009).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대 피지배층을 상징하는 취락으로 외래계·재지계·복합계를 모두 포함한다면 생활유적 공백기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무덤 자료의 양상도 중요하다. 전술한 것처럼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묘제는 외래계인 적석계통의 무덤들이 있지만, 한편으로 석관묘가 지속되기도 하고, 옹관묘가 철기가 유입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된다. 이 옹관묘는 소위 송국리식 묘제의 전형으로 보령 관창리 옹관묘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점토대토기단계에 옹관묘로 사용되는 토기는 송국리식 외반구연토기의 요소에 점토대토기문화의 조합식우각형파수가 조합된 모방절충토기(이형원 2015)이고, I 단계 재지계 취락부터 등장한다. 따라서 외래계와 재지계로 대표되는 두 집단의 묘제가 지속적으로 공존하며, 조성된다는 것은 어느 한 집단의 묘제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송국리형 묘제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초기철기문화의 무덤이 발전하는 경향은 만경강유역의 전북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된다(한수영 2015).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이 시대의 사회가 집단 간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세력에 흡수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이해관계에서 정치체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가장 뚜렷한 지역은 호서 및 서부 호남지역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국식 세형동검도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점토대토기문화 II 단계 이후 세형동검문화가 한반도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남부지방과 일본의 북부 구주지역으로 파급되는 정황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최초 요동지역으로부터 주민 이주가 있었고 여기서 일부의 집단은 곧 중서부 일대의 호서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게 재지 사회와 접촉 및 교류, 접변의 단계를 거쳐 어느 한 세력의 일방적인 흡수가 아닌 상호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통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이러한 시점을 韓사회로 본 견해(박순발 1997)가 있었는데, 기원전 2세기 초에 준왕이 남천할 당시 이미 이 지역에 韓이라는 사회가 있었음은 익히 알려진 기록이다.

즉, 그 이전에 이미 통합된 사회가 三韓이라는 고대국가의 기층문화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점토대토기문화 IV단계인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에 대한 문제는 자료의 한계상 다루지 못했다. 필자는 통합론에 입각하여 이전의 사회를 해석하였는데, 어찌하여 중부·서부지방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유적은 상대적으로 그 분포가 희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발생에 관해서는 외부 유입론과 자체발생설이 대립되는데,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서 남부지방 취락 연구와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논 문】

- 권오영,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7, 「嶺南地域 三韓時代 住居址의 變遷과 地域性」,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2014, 「遼寧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변천과 파급」, 『韓國青銅器學報』 15.
- 김범철, 2001, 「남한지역 후기무문토기문화의 성격 연구 - 서울지역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 『서울학연구』 16.
- 김성남·허진아, 2008, 「무덤을 통한 '마한' 사회의 전개과정 작업가설」, 『호서지역 읍락사회의 변천』 17.
- 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호서고고학회.
- 김장석, 2009, 「호서와 서부호남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편년에 대하여」, 『湖西考古學報』 33.
- _____, 2002, 「이주와 전파의 고고학적 구분 : 시험적 모델의 제시」, 『韓國上古史學報』 38.
- 고은별, 2010, 「경남서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 생계경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혁진, 2001, 「粘土帶土器文化의 社會性格에 대한 一考察 - 住居遺蹟의 特色을 중심으로 -」, 『韓國考古學報』 45.
- 박순발, 1993, 「한강유역의 청동기·초기철기문화」, 『한강유역사』, 민음사.
- _____, 1997, 「漢江流域의 基層文化와 百濟의 成長過程」, 『韓國考古學報』 36.
- _____, 2004, 「遼寧 粘土帶土器文化의 韓半島 定着 過程」, 『錦江考古』 1.
- 박영구, 2010, 「嶺東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展開樣相」, 『한국청동기학보』 7, 한국청동기학회.
- 박진일, 2006, 「서울·경기지방 점토대토기문화 試論」, 『考古學』 5-1.
- _____, 2007, 「粘土帶土器, 그리고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 『韓國青銅器學報』 1.
- _____, 2013, 「韓半島 粘土帶土器文化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만영, 2011, 「中部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聚落 構造와 性格」, 『韓國考古學報』 80.
- 신영애, 2012, 「嶺南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文化接變」,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건무, 1994, 「韓國式 銅劍文化의 性格-成立背景에 대하여」 東아시아의 青銅器文化 - 遺物을 通하여 본 社會相 - (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제3집).
- 이성재, 2007, 「중국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2011, 「영남 동남해안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변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일, 2005, 「松菊里類型과 水石里類型의 接觸樣相 - 中西部地域 住居遺蹟을 中心으로 -」, 『湖西考古學報』 12.
- _____, 2011, 「中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時間性과 空間性」, 『湖南考古學報』 24.
- _____, 2015, 「住居文化로 본 粘土帶土器文化의 流入과 文化變動 - 江原 嶺東 및 嶺西地域을 中心으로 -」, 『韓國青銅器學會』 16.
- 전일용, 2006, 「충남지역의 원형점토띠토기 출토 생활유적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여진, 2010, 「中部地方 圓形粘土帶土器文化의 展開過程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원, 1991, 「初期農耕遺蹟의 立地環境」, 『韓日交渉の考古學』 彌生時代編, 大興出版.
- 진영민, 2015,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의 편년과 개시연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영, 2015, 「全北地域 初期鐵器時代 墳墓 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외식, 2008, 「粘土帶土器時期的 聚落類型 研究」,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中村大介, 2008,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의 編年과 年代」, 『韓國考古學報』 68.
- 庄田愼矢, 2009, 「원형점토대토기시기 취락구조론(I)-중부지역」, 『한일 취락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찾아서』 제5회 공동연구회 발표요지, 한일취락연구회.

【보고서】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춘천 거두리 유적』.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강릉 방동리 유적 - 강릉 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강원지역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II』.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고성 송현리 유적 -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구간내 유적』.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고성 초도리 유적 - 금강간 관광로 화진포 휴게소 신축부지 내 유적』.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천전리 유적 - 동면-신북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강원문화재연구소, 2010, 『고성 초도리II·화포리 유적 - 국도 7호선(간성-현내간)도로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춘천 우두동 유적』.
-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 『춘천 금산리 유적』.
- 강원문화재연구소, 2013, 『화천 거례리 유적』.
-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0, 『강릉 유천동 유적 - 강릉 유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0, 『고성 제진리 취락 - 고성 동해선 철도 도로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 『오산 청학동 유적 - 오산 세교 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6-9지점 시·발굴조사 보고서』.
- 경기문화재연구원, 2008, 『방축리·행정리·도이리 유적』.
-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파주 와동리IV유적 - 파주 운정(1)택지개발지구 2차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 경기문화재연구원, 2011, 『오산 내삼마동 유적』.
- 고려문화재연구원, 2009, 『부천 여월동 유적 - 부천 여월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관창리 유적』.
- 고려대학교고고환경연구소, 2005, 『도삼리 유적』.
- 고려대학교고고환경연구소, 2005, 『이사리·월기리 유적』.
- 고려대학교고고환경연구소, 2007, 『홍련봉 제1보루 - 발굴조사종합보고서』.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서천 당정리 유적』.
- 국립부여박물관, 1987, 『보령 교성리 집자리 - 발굴조사중간보고서』.
- 국방문화재연구원, 2010, 『이천 이치리유적』.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대덕골 유적』.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수원 율전동유적 - 수원택지개발사업지구내 발굴조사 보고서』.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수원 율전동II 유적 - 수원 율전지구 벽산2차 아파트 신축부지내 시·발굴조사 보고서』.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화성 동화산 유적 - 화성 지방산업단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기호문화재연구원, 2009, 『용인 농서리 유적』.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 『고성 칠동리유적 - 국도7호선(간성-현내간)도로공사구간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I』.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 『춘천 현암리 유적』.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안성 반재리 유적』.
-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4, 『부여 나복리 유적』.
-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5, 『서천 봉선리 유적』.
- 충남대학교박물관, 2006, 『궁 동』.
- 충남대학교박물관, 2013, 『보령 진죽리유적』.
- 충청문화재연구원, 2001, 『공주 장원리 유적』.
-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서천 추동리 유적』.
-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아산 풍기동 앞골 유적』.
-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아산 장재리 대추리·연화동 유적』.
- 충청문화재연구원, 2013, 『서산 도당리 작은들골유적』.
- 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인천 오류동 유적』.
-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2003, 『대전 노은동 유적』.
- 한림대학교박물관, 1996, 『칠전동 점토대토기 유적 발굴보고서』.
-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 『동해고속도로 확장·신설구간(송림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한양대학교박물관, 1999, 『대모산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